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F호 모서리에 $0.54\text{m}^2(0.6 \times 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G호 모서리 부근에 $0.88\text{m}^2(1.1 \times 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H호 모서리 두 곳에 $1.10\text{m}^2(1.1 \times 1.0)$ 기둥 및 $1.05\text{m}^2(0.75 \times 1.4)$ 기둥 합계 2개, 원고 D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I호 벽면 중간지점에 $1.125\text{m}^2(0.75 \times 1.5)$ 기둥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B1~2층)'(갑 제13호증)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다(분양가 등 기재로 인해 위 표시가 일부 가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